

수원시 영통2동, '착한나눔 인증' 현판식 개최

8 김동수 기자 | 2023.09.11 16:49 승인



▲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은 관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웃을 돕는 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착한나눔인증'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 뉴스피크

[뉴스피크] 수원시 영통구 영통2동은 관내 어려운 환경에 놓인 이웃을 돕는 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착한나눔인증'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영통2동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기부문화 확산 및 격려를 위해 2023년 새롭게 이웃돕기 특수시책 사업으로 '착한나눔 인증' 현판식을 진행했다.

'착한나눔인증' 대상은 30만원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현물 및 현금 등을 기부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이웃돕기 사업에 참여의사가 있는 단체 및 사업장이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월례회의 시 심의하여 상·하반기 총 10개 사업장이 선정됐다.

이번 대상은 2022년 4월 창립한 개척교회로 지난해부터 총 7,800여 만 원을 기부한 수원 꿈꾸는교회(담임목사 조훈), 홍삼·수세미즙 등 물품을 후원한 나이키 수원디지털엠패이어 점(대표 한승영)과 광성마이크로텍(주)(대표 이규영), 취약가정을 매칭하여 매달 현금지원을 하고 있는 서진일렉트론(주)(대표 홍충선)·드림파츠(주)(대표 배신규)등 5개 사업장이다.

공영화 영통2동장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후원해주시는 사업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피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수 기자